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2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andt

오늘 내가 나열한 주석 읽기 외에도 J. Barton Payne이 쓴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에 연대기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당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매우 복잡한 자료입니다),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연대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의 종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문제, 특히 즉위 연도 데이트 또는 비 즉위 연도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섹션과 봄 시작이든 가을 시작이든 연도가 시작되는 공동 섭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대부분의 연대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또 다른 사항은 절대 날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사의 앞부분에서 Payne이 말한 것을 기억한다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연대기에는 아시리아 기록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경 자료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될 수 있는 특정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기록을 비교할 수 있고, 아시리아의 기록이 과거로 돌아가고 일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날짜가 정확하다는 것을 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점을 제공합니다. 일식을 통해 연도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후가 살마넛세르 3세 에게 조공을 바친 때는 기원전 841년과 같이 성경 연대기의 특정 시점에서 고정된 날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시리아 기록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정점을 얻으면 그 지점에서 앞뒤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시적인 통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후의 시대보다 앞선 시대부터 뒤로 일할 수도 있고 예후의 시대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며, 그러한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원전 853년 카르카르(Karkar) 전투 와 거기에 아합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고정점을 제공합니다.

이 예에서 나의 목적은 단지 여러분에게 연대기 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 중 일부의 복잡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싶다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열왕기상과 하의 개요를 취하고 본문 자체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숫자 I인 솔로몬 치하의 영국을 좀 더 자세히 강조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열왕기상하의 나머지 자료 대부분에 적용된다. 나는 솔로몬에 관한 자료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아마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 솔로몬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아합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A"는 "소개 자료"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의 개요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하위 요점이 있습니다. "1"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열왕기상 1:1-2:12"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해당 섹션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해보셨고 해설도 읽어보셨으니 1:1~2:12의 기본 내용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섹션에서 기본적인 질문은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입니다. 해당 섹션에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루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급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할 다른 아들(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사실상 한 권의 책인 사무엘상하의 절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가 영원히 지속될 왕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2절의 그 약속의 맥락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우리 몸에서 날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역대상 22장 8~10절과 비교해 보면 “너희가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하였느니라. 네가 내 목전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게는 평안하고 안식의 사람이 될 아들이 있을 것이니, 내가 그에게 사방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평안함을 주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이다.” 보시다시피, 당신이 실제로 계승의 지점에 있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신 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은 여디디야 였습니다 .

사무엘하 12장 24~25절입니다. 이는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다윗과 밋세바의 사건 이후입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동침하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였느니라 .”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다윗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아마도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연적인 혈통에서는 장자가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성경에서 꽤 흔한 종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약속된 씨, 즉 약속의 계열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부은 사람은 이새의 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모든 아들을 앞에 오게 한 것을 기억하라. 형들은 나아갔으나 그들은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데려갈 생각도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무엘이 그 수를 셀 줄로 생각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예가 많이 있으며, 제가 보기에 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인권이나 권세 또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지만, 그분의 구원 사역을 추진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주권적 성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와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반대하여 일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서는 그 축복을 원했고 이삭은 그에게 그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음모 속에서도 야곱을 위한 축복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 상 1장에는 주님께서 후계자를 지명하셨으나 아도니야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첫 두 장의 질문은 다윗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고려 사항이 우선할 것인지입니다. 아도니야는 다윗의 남은 아들 중 장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압살롬과 암논이 죽은 것을 기억합니다.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였고, 그로 인해 압살롬은 그를 죽였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유배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윗에 대한 반역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그는 반란의 여파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암논 과 압살롬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야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솔로몬이 후계자로 지명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이제 학깃의 어머니 아도니야가 나서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위를 스스로 찬탈하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본질적으로 혁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자신을 내세우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아도니야 사이의 실제적인 대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차지하도록 지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그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손을 들지 아니하였더라 내 생각에 아도니야는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음모와 은밀한 방법으로 왕좌를 노립니다.

7절을 보면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하고”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고, 물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도니야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 과 여호야다 의 아들 브냐 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와 레이 와 다윗의 호위병들은 아도니야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그런 다음 Adonijah는 En Rogel 근처의 Zohemoth 돌에서 양, 소, 살진 송아지를 희생했습니다 .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와 왕의 아들들과 유다 모든 왕의 신하들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그의 형 솔로몬의 경호병 브나야는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도니야는 이 계획에 참여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7절에서 그는 요압 과 아비아달 에게 도움을 구하지 만 일부러 나단과 브나야 와 경호병과 그의 형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가 신부에게 자신의 혁명에 대한 종교적 승인을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 일을 종교적 제재로 덮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대하고(9절)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9절). 그는 자신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종교적 제재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며, 그것이 주님의 표현된 뜻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그의 혁명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1장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네 가지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 첫 번째는 11-14절에 나단과 밋세바 사이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에게 묻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고 왕이 되었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거기에서 왕과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나도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아도니야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 모두에게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고
밋세바에게 경고합니다. 11~14절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아마도 거의 언제든지, 왕좌 찬탈자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왕좌에 대한 다른 모든 가능한 주장을 살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밋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밋세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윗에게 알리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11-14절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1장 15-21절의 밋세바와 다윗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밋세바는 연로한 왕을 만나러 그의 방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고 있었습니다. 밋세바는 왕 앞에 몸을 굽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물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당신의
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으나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소와 살쥔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눈이 내 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아니하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실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아도니야의 혁명과 그가 특히 요압 과 아비아달 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그 다음 세 번째 대화는 22-27절에 나단과 다윗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왕에게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나단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야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까 ? 오늘 그는 내려가서 수많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 아도니야 왕 만세 !”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것이니이까'라고 했습니다. 나단이 들어왔는데, 내 생각엔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다소 외교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는 아도니야가 왕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고, 말하자면 다윗에게 그가 이것을 승인했는지 물어봅니다.

마지막 대화 는 28-31절에 다윗과 밋세바가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이르되 밋세바를 부르라.” 그래서 그 여자는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맹세하여 이르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네게 맹세한 것을 오늘 반드시 지키리라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하였노라 내 뒤에는 그가 내 대신에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밋세바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왕 앞에 절하여 이르되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장소를 지정하면 완료됩니다. 사독과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칩니다.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그 소식이 다윗 자신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아도니아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혁명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가서 제단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아마도 궤가 보관되어 있던 모리아 산의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텐트. 49절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흩어지니라.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붙잡고 있다’ 고 말하였다. 그는 ‘솔로몬 왕이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 되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에게서 악한 점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2장의 앞부분인 첫 4절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부분이 있는데, 비록 길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네 구절은 진정한 언약의 왕의 프로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죽을 기한이 가까워지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힘써 대장부를 보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요구를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그 일에서 형통할찌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네 자손이 그 생활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네게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좌에.’” 나는 그것을 진정한 언약의 왕의 프로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부의 고삐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유연을 전합니다. 그의 책임이 무엇인지, 진정한 언약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 개념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무엘상 8-12장에서 왕권의 발흥에 관한 구약 역사 과정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여기 열왕기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권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한다면, 그들에게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왕궁은 없었습니다. 왕의
 보좌는 없었고 오히려 언약궤를 모시는 천막만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언약궤가 여호와의 보좌였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시 성막
 안에 있던 궤 꼭대기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습니다. 실제로 법궤는
 이스라엘의 신적인 왕이신 야훼의 보좌였으며, 이는 주변 국가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왕궁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왕궁 이 없고 그 안에 궤가
 있는 이 천막만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더라. 그 마련의 기본
 개념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의 명령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은 당신이 야훼를 신성한 왕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맺은 언약의 의무에
 순종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 질서와 단결은
 물론 사회 전반의 질서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떠나 여호와의 왕권을 거듭 부인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에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사시대에 압제와 회개, 구원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보면 초반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암몬 사람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전투를 지휘하고 싸워줄 왕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왕을 주지만, 그렇게 할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을 주의 깊게 정의하여 그것이 결코 여호와의 지속적인 왕권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인간 왕을 백성을 통치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왕이 아닙니다. 부섭정으로서 왕이군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참된 왕이시며 인간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여호와의 율법의 언약적 요구 사항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게 중요했습니다 .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선지자, 특히 사무엘의 말을 기꺼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는 주님의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 다음에는 다윗이 뒤따릅니다. 물론 다윗은 지난 주에 논의한 것처럼 언약적 왕의 이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진정한 언약의 왕이라는 책임보다 자신의 이익과 왕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고, 그의 삶에서 그것이 아주 분명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다윗의 요점은 그가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서 벗어났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왕권에 대한 비전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을 지켰고, 내 생각에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왕권의 본질에 대해 분명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임종할 때 이 구절에서 그 통찰력을 솔로몬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10 이하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10 이하에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시작됩니다. 비록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기 직전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의 문맥은 다릅니다. 29:21입니다. 다윗의 죽음은 29:26에 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 왕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전반적인 머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모든 사람을 높이고 힘을 주는 힘과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오며, 우리는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만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나날은 희망이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은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모든 것은 나는 기꺼이 그리고 정직한 의도로 바쳤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얼마나 즐거이 바쳤는지를 기쁘게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 이 뜻을 영원히 간직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소서.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전심으로 헌신하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정한 궁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다윗이 갖고 있는 개념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 주님의 왕권에 종속되는 인간 왕의 통치, 그리고 인간 왕이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성.

19절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요구를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의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율례를 지키라.” 따라서 처음 4절에는 다윗에 대한 정치적인 유언이 있는데, 왕권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선한 왕이 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호와와 왕권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여호와와 왕권을 섬기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분석에서 참된 왕에 대한 다윗의 프로파일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은 오직 한 왕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도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보좌에 오셔서 앉으실 때에만 언약적 왕권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비록 다윗과 솔로몬이 모두 상위에 있지만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두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참 언약의 왕이 의도하신 대로 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온전하게 다스릴 분을 가리킵니다.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관련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구원적 역사적 관점이다. 그것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게 되며, 왕권 제도는 확실히 구속 계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이 왕들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프로필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당신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들과 우리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의 통치에서 야훼의 왕권을
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명령을 요구하는 모든 것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 삶에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제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코멘트일 뿐입니다.

이제 2장 5-12절에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의 통치에 여호와의 왕권을 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주변 세상에. 그러나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복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 할 때 , 우리는 생활 방식을 통해 그 명령 중 일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속적, 역사적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왕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이상을 성취하실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왕들에게 반영되어야 할 야훼의 통치라는 원칙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삶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표를 볼 때 고대 이스라엘의 직분은 그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읽는데, 이는 신약에서 선택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계열은 확실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직분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아론 계통이 아니고, 아론 계통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모든 직분을 결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의 5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세 사람을 다루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요압, 바르실래, 시므이입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바르실래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을 때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 과 시므이는 다윗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는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시를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관심으로 그것이 좋은 기초 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5절에서 요압 에 대해 읽어 보십시오. “스루 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텔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당신도 아느니라. 그는 평시에 전쟁을 하듯 그들의 피를 흘리며 그들을 죽였고, 그 피로 허리띠와 발의 신을 더럽혔습니다. 당신의 지혜대로 그를 처리하시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내용은 매우 분명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아브넬 과 아마사를 죽였는데 , 그는 전투 중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정말 그들을 죽였을 겁니다.

나중에 그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 후에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요압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지시한 것은 요압의 목숨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민수기 35장 30-34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살인자의 생명을 대속물로

받지 마십시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를 위하여 대속물을 받지 말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를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지 말라. 당신이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피를 흘린 땅은 속죄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주함이라.” 숫자는 유혈사태가 땅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더럽힌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피흘림은 하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성적 부도덕은 또 다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전체가 불법적인 성관계와 음란에 관한 내용인데, 25절로 내려가면 “땅도 더러워졌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같이 더러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땅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7절, “너희 이전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느니라. 만일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나라들을 토함 같이 너희도 토할 것이요.” 그러므로 유혈사태는 성적 부도덕과 함께 땅을 오염시킵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 예레미야 3:9: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도덕을 별로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로 간음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만 거짓으로 내게 돌아왔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은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로 간음을 행하였으며, 에스겔 36장 17-18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일탈이지만 여기서 요점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땅을 더럽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요압의 피흘린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통치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 시대에 그 예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맺은 조약을 어기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 기브온 사람들과의 평화 조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여 삼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였으니 내가 보기에는 요압 에 대한 이 명령도 그와 관련된 것 같으니라 .

10분만 쉬자.

제프 브라운(Jeff Brown)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